

단편소설

그리고 바다,

김근수

하 늘에서 하루가 갔다. 피레네산맥 능선에 빛의 입자가 깃들더니 산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갔다. 산맥을 우회하면서 비행기는 가파르게 고도를 낮추었다. 이윽고 도시가 일개를 드러내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통로를 나오자 동양인 여성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데면데면 여성에게 다가섰는데, 대사관 신분증이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집단 관광객이 많고, 동양 사람이 홀로 입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단번에 나를 알아보았다고 대사관 직원이 미소를 보였다.

- 한국인은 특징이 있어요. 낮은 공간, 시간, 타인, 모든 것을 처음 대면하는 예의탈까. 그런 태도가 한국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있다 봐요.

대사관 직원의 인술에 따라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옷가지며 생필품을 든 짐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고 나서 뚝뚝 허리를 펴니 그제야 바르셀로나의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다. 비행 중 내내 창에 걸린 액자 그림 같은 그저 그런 하늘과는 달랐다. 색깔이 청량했고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함도 배어있었다. 시내로 들어서자 석조 건물들이 공백없이 이어지며 차창을 스쳤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중저층의 오래된 건물들이 도로를 엄호했다.

이동하는 동안 비행 시차로 인해 노곤함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택시가 멈추었고 대사관 직원이 속소를 가리켰다.

- 스페인 당국도 어지간히 당황하고 있어요. 배는 견인되어 여기 바르셀로나 항구에 정박 중입니다. 내일은 우리 대사관이 함께 입회하는 간단한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녀는 애써 눈꼬리를 올려 웃음 짓고는 타고 있던 택시에 몸을 동그랗게 밀어 넣었다.

선 작장에 붙어있는 어선은 마을 이장의 배 한 척이었지요. 선명은 '덕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덕성호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려서 이장의 바닷일을 거들었어요. 여름 끝이었던가,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선선한 기운이 도는 그런 날이었어요. 파도가 몹시 차대더니 덕성호가 돌연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가 보이지 않자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난 것이지요. 배를 잃은 이장은 물론, 온 마을이 일제히 초상 치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양경찰이 나섰지만 끝내 배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북한 해역과 인접해서 NLL을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 다행스러우며, 바다에서 어선 실종은 흔한 경우로서 담당 부서는 실종 어선 수색에 주의를 다 할 것이라, 바다는 넓고 배는 작아서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실종상태가 오래가면 통상 침몰한 것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해양경찰 순경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배를 찾지 못한 이장은 매일 선착장에 나가 있었어요. 선착장에 구부리고 앉은 이장은 멍하니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 저러다 사람 하나 버리지. 배는 또 모으면 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말려도 보았지만, 이장은 한사코 바다에 나갔어요. 이장이 응시하는 바다는 비어있었고 연안으로 들어치는 파도에는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이장이 사라졌지요. 배를 따라갔다고 어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에서 생업은 배 없는 곤란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배는 단순히 선주의 조업에 이바지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 마을의 이력저런 일들에 긴요한 쓰임으로 수시로 바다를 건너다녀야 했습니다. 외진 마을에서 배는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선이기도 했고, 급성으로 병장이 터진 환자를 시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다급한 역할도 해야 합니다. 마을이 작동하고 마을로 이어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장의 배가 없어지고, 이장마저 배를 따라 사라져 버린 마을은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아침저녁으로 아버지에게 이장직을 강제한지요. 아버지는 마음먹고 새 배를 들이기로 했어요. 어지간히 뱃질의 경력도 붙었고, 근해 어업 자격도 취득해 두었는지라 모자란 자금과 은행융자를 내서 배 한 척을 모았습니다.

배가 아버지에게 인도된 날, 아버지는 철학관에 현찰을 내밀어 목선의 이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주쟁이가 내놓은 선명은 '삼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삼홍호를 몰아와서 마을 선착장에 붙일 때, 마을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서 손을 흔들며 환영했어요. 사람들이 팔 걷고 나서서 돼지머리와 제수품을 뱃전에 올리고 팽과리를 두들겼습니다. 아버지는 돼지머리에 지베 뭉치를 물리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도 아버지 곁에서 절을 했습니다. 갈매기가 잡힐 듯 가까이 날아들었어요.

영 문 모를 천체가 태양계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체는 태양과 지구 공전 궤도



그림=김해성 작가 ▲ 조선대 미술대학 동 대학원 졸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한국미술협회이사 ▲ 웰컴 아트페어 등 단체전 500여 회 참여

사이를 찌르고 들어와 궤적을 급진화하면서 빠르게 태양계를 벗어나 페가수스 별자리 방향으로 사라졌다. 북반구와 남반구 대륙 곳곳에 배치된 망원경이 천체가 태양계를 탈출할 때의 궤적과 속도를 분석했는데 자연적 물리현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과학계는 할 말이 없어 어수선했다. 호흡을 가다듬은 전문가들이 일제히 천체의 정체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천체의 정체를 규정했으나, 의문점은 가시적 않았고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반박이 부딪혔다.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는 생김새가 독특했는데 몸통의 길이에 비해 네비가 기형적으로 짧았다. 그래픽으로 제시된 천체의 외형은 바게트빵 형태였다. 예측 경로와는 사뭇 다른 운행 궤적과 방향. 지금껏 관측되지 않은 놀라운 태양계 탈출 속도는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급기야 소행성도 혜성도 아닌 '그 무엇'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 버지는 주로 새벽에 조업을 나갔고, 아침 나절에 조업에서 건진 것들을 시내 어시장에 내놓는 모습을 서너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여름이나 겨울 방학의 끝 무렵이었지요. 철없는 내 눈에 아버지의 성과물은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조업의 성과라는 것들은 대체로 광어, 농어, 송어 같은 익숙한 생선이었고 더러 바람 좋은 날에는 돌문어가 들기도 했지요.

아버지가 그런 물속 것들을 살려와서 어시장 바닥에 놓으면 경매꾼이 사람들을 줄 세우고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빠르게 했어요. 나는 경매꾼의 입을 쳐다보면서 내가 아는 낱말들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랐는데, 없었어요. 경매꾼의 손살같은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면 사람들은 웃음 안에서 손가락을 일순간에 펴고 점으면서 아버지의 성과에 가격을 매겼지요. 경매꾼의 재빠른 말을 알아들어서 손가락으로 찢러 답하는 일의 요체를 나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어요. 나는 매번 실패했습니다. 시커먼 바다 위에 여명이 변질 때까지 이어진 아버지의 고투는 경매꾼의 입을 거쳐 사람들의 날쌔 손가락질 끝에 값어치가 정해지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경매 사무실에서 그날 낙찰가로 현찰을 받았습니다. 지폐 매수를 확인하고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내 손에 닿은 아버지의 손은 남달리 값있어요. 투박했는데 또 뜨겁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걷는 어시장 귀퉁이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발소 회전 간판이 보였지요. 방학 동안 덩수룩하게 자라버린 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어시장으로 데려온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발사에게 나를 맡기고 마을 전체가 요청한 여러 심부름을 처리하러 어딘가로 갔지요. 마을에서 배를 소유한 이장의 소명이자 운명일까요.

이발이 끝나고 내가 어색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삼홍호가 접안 해 있는 어시장으로 되돌아가면 아버지는 이것저것 마을에서 필요한 물건을 담은 종이상자를 갑판에 싣고 있었어요. 별이 맹렬

해서 꺾듯 마르는 냄새가 어시장을 괴롭히게 매웠지요.

갈매기들이 어시장까지 따라와서 아버지의 목선 조타실 지붕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목달미가 희고, 부리가 노랗고, 눈매가 예리한 새들이었지요. 그것들은 까만 한쪽 눈으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짐을 정리하고 아버지는 이번에는 이발소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가게 입구에는 조그마한 비취색 구슬이 무수히 달린 발이 내려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손을 저어 발을 찢히고 들어서자 가게 안을 지배하던 짜장 볶는 냄새가 허기를 당겨서 나는 조바심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주방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펼쳤고 얼마 후 짜장면 두 그릇이 나왔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릇에서 면을 덜어서 내 앞에 놓인 그릇에 옮겨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머리통을 그릇에 박고 젓가락질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면발에 고춧가루와 식초를 뿌려서 먹었고 하얀 양파를 새까만 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지금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이면 비취색 구슬 달린 발과 짜장 볶는 냄새, 휘휘 비벼 그릇을 내 앞에 놓던 아버지의 모습, 나는 그런 하루를 잊을 수 없는 것이예요.

과 학계의 컨센서스는 다른 항성계에서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인터스텔라 천체였으나 정체를 두고는 이견이 분분했다. '그 무엇'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기자가 몰랐다. 발표자가 화면에 물체를 띄웠다. 길쭉한 돌덩이였다.

솔즈베리의 스톤헨지 거석과 닮은 형태였는데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거대한 돌덩이를 가리키며 발표자는, - 이 천체의 운행 궤적으로는 도저히 소행성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혜성이라 하기에 도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며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 통상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태양열로 인해 표면의 얼음 같은 성분이 기화되면서 비행운을 길게 내뿜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천체의 태양계 진입 속도와 비교하여 탈출 시 놀라게 빠른 속도를 설명하려면 가스가 기화되어 엔진 역할을 하여야 원인이 설명된다.

학계의 다른 의견으로는 천체 내부에서 수소가 태양열에 의해서 기화되었으나 천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스의 동력원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에 없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결론에 가깝다. 이번 성간 천체는 태양계를 벗어날 때 태양 중력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스윙바이 항법이다. 보이저 1, 2호도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스윙바이 했었다. '그 무엇'은 외계문명의 인공적인 물체이거나 어떤 현상으로 보인다.

기자석이 술렁거렸다.

아 버지는 주로 새벽 별을 보면서 바닷일을 했고 낮에는 선착장에서 삼홍호를 손보거나, 마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매번 그 언저리에서 성립되었겠지요. 학교 담장 너머 선착장에 아버지의 배가 보이면 나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둘러맨 채 비탈길을 타 내려가 선착장으로 달려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배 위에서 어구들을 유심히 보고, 만지며 놀랐지요. 내가 어구의 쓰임새를 물으면 아버지는 그물코를 잇던 손을 잠시 놓고 용도와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었지요. 낚시바늘의 형태와 바늘 축의 날카로움에 따라 걸리는 물고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나무 낚시대를 나에게 건네며 낚시바늘에 깃털링이를 달아 주었습니다. 나는 배 옆구리에 서서 낚시대를 물속으로 틀어대었지요. 물이 맑아서 노는 물고기들이 훤히 보이었어요. 물속을 오가는 물고기를 내려다보면서 낚시대를 아래로 좌우로 돌려서 녀석들이 미끼를 물기만을 나는 기다렸습니다. 토도-둑! 녀석들이 미끼를 건드리는 것이 손끝에 전해졌는데 낚시대를 끌어 올리면 빈 줄이었지요. 물속에 손을 넣으면 잡힐 듯 물고기들이 뻥히 보이는데 도무지 달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자주 그러니까 나는 부아가 오르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지요. 보다 못했는지 아버지가 내 곁으로 와서 낚시대를 드렸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낚시대가 꺾이더니 물고기가 몸통을 휘둘러 딱 튕리며 매달려오는 것이예요. 아버지는 물고기 아가미를 벌리고 봉뚱뚱 따듯 낚시바늘을 또-각 뽑아냈습니다. 영문모를 세상으로 끌려나 온 녀석은 갑판 위에서 어지간히 파닥거렸어요. 녀석의 비늘에서 물 밖 세상의 햇살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 손끝에 집중해서 고기가 바늘을 끌고 간다는 순간 그때 얼른 채는 거란다.

아버지는 대나무 낚시대를 쩍썩 채는 시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을 나는 입말로 외우듯이 하면서 내내 낚시에 몰두했었어요. 토-둑! 녀석이 왔다. 미끼를 문다. 끈다. 지금이다. 나는 손목에 잔뜩 힘을 실어 물고기를 채었어요. 녀석이 묵직하게 저항하니 손맛이 오르는 것이예요. 턱에 힘이 몰리고 이를 악물면서 나는 낚시대를 당겼지요. 낚시대 끝이 활처럼 휘어졌고 나는 온 힘을 다했었어요. 녀석은 끈적하지 않는 것이예요. 다시 한번 으-랏-차! 순간 나는 갑판에 벌렁뒤로 내동댕이쳐진 겁니다. 아버지의 폭신한 그물과 부표 더미가 내 등을 받쳐 주었지요. 은빛 낚시줄이 파란 하늘에 곡선을 그렸어요. 낚시줄 끝에 매달린 눈부신 유선형 물고기! 아, 나는 갑격의 눈을 부릅떴는데 낚시줄 끝에 매달려 있어야 할 물고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세히 보니 낚시바늘도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물고기는 멀리 하늘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눈이 동그아져 나는 소리 쳤지요.

- 물고기가 날아요. 보세요. 저기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조타실 라디오에 흐르던 음악이 지직거렸어요. 물고기가 사라진 자리에 구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물코를 가우면서 아버지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물 더미에 누워 부표를 베게 삼아 한참을 벌렁뒤 누워만 있었어요. 눈부시게 파란 하늘로 물고기는 가버렸어요.

문 주의 언덕을 돌아 내리막으로 진입하자 지중해가 나타났다. 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해변 쪽 차창을 응시했다. 바다를 막아선 모래사장으로 파도가 때를 쓰며 바스라지고 있었다. 모래사장이 끝나는 곳에 돛을 펼친 듯한 형상의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 보였고 바다 쪽으로 요트 정박장이 길게 뻗어 있었다.